순천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市, 내달부터

순천시가 다음달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13일 순천시에 따르면 관내 353개 초중고교생들에게 오는 3월부터 무상급식을 하기위해 내달 9일 시의회에서 기존 '학교급식 식재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체하는 '순천시 무상급식 등 지원조례'가 가결될 예정이다.

순천시는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실시 정책에 시의회도 찬성함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순천시 무상급식 등 지원조례'를 만들어, 지난 8일부터 입법예고한 상태다.

예산은 총 280억원으로, 급식 식자재는 친환경 식재료 사용방침에 따라 순천시내 2천200여 농가와 계약재배를 추진한 농협을 통해 공급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도내에서는 맨 먼저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셈"이라며 "도와 도교육청이 부담할 210억원이 내달 바로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어려운 과수 키우기 도와드려요" 곡성군 과수 정지·전정 기술지원단이 최근 사과·감·매실 재배 고령 농업인과 귀농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기술지원단은 3월 상순까지 과종별 가지치기와 나무수형 다듬기, 가지 유인 등을 교육한다. 〈곡성군 제공〉

"산수유 나무 반출 안돼"

구례군 불법 반출 금지 조례 추진

구례군이 지역의 대표적 특산물인 산수유 나무의 외지 반출을 막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는 등 산수유 지키기에 나섰다.

지자체가 특정 나무를 지키기 위해 조례까지 제정하기로 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구례군은 최근 수백 년 된 산수유 고목이 조경용으로 외지로 반출되는 사례가 빈번해 산동면 일대 산수유 마을이 존폐위기에 처하고 있어 산수유 나무를 지키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고 13일 밝혔다.

지리산 자락인 구례군 산동면 일대에서 자생하는 산수유는 한약재와 전통차 등으로 인기가 높아 연간 50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지역의 대표적 소득원이다.

여기에 이른 봄 노란꽃은 구례의 또다른 명물로 축제까지 열릴 정도로 관광객을 모으는 상품이다.

그러나 50년생 이상 고목 산수유가 최근 몇 년 사이 500여그루 이상 외지로 팔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일일이 손으로 따야 하는 수확의 어려움에다 고령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도 조경업자에게 넘기는 주된 이유다.

군은 이에 따라 최근 대책회의를 갖고 불법 반출을 원천적으로 막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자체 조사 결과 산수유 13만그루 중 수령이 50~100년생이 8400여그루, 100년 이상된 고목은 1100여그루로 집계됐다. 조례에는 50년 이상은 아예 반출을 금지하고 고목 소유 농가 관리비 지원, 수확기계 지원 등을 담을 계획이다.

구례군 장병호 원예특작계장은 "지역 특산물인 나무를 지키기 위한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있는 일이다"며 "주민과 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빠른 시일안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연말엔 여수~서울 3시간 7분"

KTX 익산~신리 12월 개통…박람회 SOC 속도

'2012 여수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 박람회성공개최에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신설되는 2개의 고속도로 중 순천~완주(전북) 구간은 지난 1월말 이미 개통됐고, 목포~광양간 노선도 현재 87%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박람회 개최 이전 개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수~순천간 복선전철화 사업은 현재 96% 공정으로 오는 9월 개통될 예정이다. 이 공사가 완공되면 KTX 서울~여수간 운행시간이 3시간17분 소요된다. 올 12월 익산~신리 구간이 완공되면 여수~서울(용산) 운행시간은 3시간 7분으로 줄어 물류비 절감과 관광수요 증가를 기대 할수있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순천~여수간 자동차 전용도로와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최근 한나라당 김무성 대표가 예산확보를 약속한 여수터미널~박람회장간 확장공사도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또 광양과 여수를 연결하는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인 '이순신 대교'는 내년 5월 박람회 개최 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 연결도로인 월내·낙포·호명 구간의 4차선 확장공사도 올 3월 착공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곡성 '충효 문화의 고장' 꿈꾼다

郡, 만화 등 콘텐츠 개발 관광자원화

곡성군이 올해 '충효'(忠孝)를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를 개발, 관광자원화에 적극 나선다.

곡성군은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덕목인 충효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 개발 학술용역을 통해 만화, 애니메이션, 영상게임 등 콘텐츠를 개발하고, 심청 이야기를 비롯한 도림사·용산재·경찰승전탑 등 볼거리 문화자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볼거리 문화자원 발전과 함께 지역자원의 이야기를 발굴하는 '스토리텔링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들이 의미있고 재미있는 문화이야기를 보고들을 수 있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체험행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전통문화에 나타나는 도깨비문화를 재조명하는 공간인 '섬진강 도깨비 마을'을 조성하고 청계동 양대박 장군 의병훈련 체험장을 통해 관광객이 손수 몸으로 체험해 잊을 수 없는 관광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오곡면 송정리 일원 부지 17만6498㎡에 들어서는 전국 최대규모의 '섬진강 도깨비마을'은 도깨비 역사관과 체험관·영상관·산책로 등을 조성해 체류형 관광객을 유입할 계획이다.

청계 양대박(1543~1592) 선생은 임진왜란 당시 곡성 청계동을 근거지로 활약한 의병장이다. 군은 올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실시설계를 마친후 내년부터 의병훈련장 부지를 매입하고 의병·무술단련 시설과 파고라 등 편의시설을 조성, 청소년들의 충의(忠義) 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군은 ▲유팽로장군 유적지 ▲오봉사와 충열문 ▲함허정과 군지촌 정사 ▲항일운동 단군전 ▲마천목 도깨비살 ▲압록경찰 승전탑 ▲용산재(신숭겸장군 태생지) ▲장선리 침실습지 등을 잇는 섬진강변 관광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허남석 곡성군수는 "현재 곡성의 문화는 미개척지로써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문화산업을 개발하고 널리 알려서 수익창출뿐만 아니라 곡성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보성군, 벼 농가에 육묘용 상토 지원

보성군은 농촌의 노령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매년 못자리 육묘용 상토를 지원, 호응을 얻고 있다.

보성군은 올해 사업비 10억여원을 확보해 벼 재배 전 농가에 ha당 45포씩 80% 보조 지원한다.

군은 최근 농업인 단체와 지역농업인 대표, 행정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열고 농가에 공급할 육묘용 상토 품목과 단가를 결정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상토는 (주)성화에서 생산된 5개 제품(중량·준경량·경량·친환경·톤백용)으로 하고 공급가격은 일반업체에서 농가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20~33% 낮은 포당 2500원(20ℓ 기준)으로 결정됐다.

사업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벼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전년보다 ha당 5포가 많은 45포(20ℓ 기준)까지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오는 20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전 북

"마을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합니다"

'지리산 천년송'(천연기념물 제424호) 당산제가 지난 12일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와운마을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주민들은 주민화합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매년 음력 정월 열흘날에 당산제를 열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새만금 송전선로' 이달 착공

3년만에 실시계획 인가…주민들 소송·집회 등 반발 거세

3년간 끌어왔던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나 새만금에 전력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군산시는 지난 11일 도시계획 시설(전기공급설비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도보를 통해 고시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산단에 태양광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 공장을 건립하려는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10조원 투자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들은 "고압 송전선로를 지상에 설치할 경우 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3년 만에 실시계획 인가= 새만금 송전선로는 임피전력소에서 산북동 옛 해양경찰서 인근의 새만금변전소(30.331㎞)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송전탑(92개)과 선로를 지상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행은 한국전력공사가 맡는다. 사업 착수는 이달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 시행지는 임피면과 대야면, 회현면, 옥구읍, 개사동, 신관동, 산북동 등 군산 관내 7개 읍면동이다.

한전은 실시계획 인가가 남에 따라 그동안 지연됐던 송전선로 공사를 가급적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관계기관과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용지보상협의회'를 이른 시일내에 구성하고 토지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거쳐 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철탑을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토지보상 협의에 끝내 나서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절차를 거쳐 공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토지주·주민 "지상 설치는 절대 안돼"= 군산시의 실시계획 인가로 한전의 본 공사 착공이 현실화하자,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높아가고 있다. 한전은 토지 감정평가 후 곧바로 주민과 보상협의에 나설 방침이지만 현지 주민들의 반발 강도가 거세 사정은 그리 녹록지 않다.

토지주와 주민들로 구성된 송전선로 반대대책위(공동 위원장 문기수 등 4명) 관계자들도 이날 사업계획 인가 취소 소송과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 변호사와 법적 검토에 들어갔으며, 대규모 집회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한전이 끝내 토지수용 절차를 밟는다면 공사 현장을 농기계로 봉쇄하는 등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각오다. 한편 이번 사태는 한전이 새만금 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905억원을 들여 군산전력소~새만금변전소 사이의 지상에 송전선로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이 인체 유해와 자연경관 훼손, 재산가치 하락 등을 우려하며 지중화를 요구해 3년째 타결되지 못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전주 버스파업 '갈수록 태산'

전세버스사 운행거부 표명…교통대란 불가피

전주시내 버스파업이 두 달째를 계속되고 있지만 노사가 첨예한 갈등으로 맞서면서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대체버스로 투입된 120여 대의 전세버스 차량의 운행 지속 여부가 또 다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봄철 전세버스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는 데다 최근 민주노총에서 전세버스 회사를 상대로 지입차량 등을 문제로 삼겠다고 나오면서 일부 전세버스 운전자를 중심으로 동요가 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부 전세버스 회사는 오는 14일부터 운행 거부 뜻을 밝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현재 대체버스로 투입된 전세차는 120여 대로, 이는 전주시내 버스 운행 비율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파업 이전의 평상시에 전주시내에서는 380여 대의 버스가 운행 중이었다. 이 때문에 이들 전세버스 운행의 중단으로 대체 교통량이 마련되지 못하면 새 학기를 앞두고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도내 전세버스의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대비해 다른 시·도에서 직영차를 들여와 임시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아직 전세버스 회사들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파악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여러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응철기자 k0765@

군산 전력사용 도내 '최다'

1위 'OCI'…지난해 전기요금 1242억원

새만금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사업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군산지역의 전력 사용량이 전북도내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KEPCO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군산이 6504GWh로 가장 많은 전력 사용량을 기록했고, 전주(완주 포함) 5539GWh, 익산 2775GWh 순으로 집계됐다.

기업별로 보면 폴리실리콘을 주로 생산하는 군산소재 OCI가 176만7304MWh로 가장 많은 전기를 썼는데, 이들이 낸 전기요금만도 1242억5600만원에 달했다.

월 평균 100억원어치가 넘는 전기를 사용한 셈이다.

2위와 5위 역시 군산에서 특수강을 생산하는 세아베스틸(134만4598MWh·953억2800만원)과 제지생산업체인 페이퍼코리아(22만5380MWh·156억8200만원)였다.

1~5위 중 3개 기업이 군산지역 업체들로, 이들 기업의 전력 사용량이 도내 14개 시·군 전체 사용량의 17.6%에 달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단신

오정숙 명창 유물 284점 전주시에 기증

동초제 소리의 '대모'이자 중요무형문화재인 운초(雲超) 오정숙 명창의 유물 284점이 11일 전주시에 기증됐다.

이날 기증된 유물은 오 명창이 생전에 소리 공부를 하며 쓰던 가야금, 북, 아쟁과 같은 악기 11점과 책 89점, 생전에 썼던 반지, 목걸이, 부채와 같은 장신구 119점 등이다. 이들 유물은 '오정숙 판소리보존회'의 배기봉 이사장이 보관해온 것으로, 올 상반기 개관할 소리문화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김응철기자 k0765@

남원 지역사회 행복만들기 '해피N' 출범

남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남원행복만들기'(약칭 해피N)가 지난 10일 출범했다.

공동대표에는 이훈정 화백과 강춘성 전 남원부시장이 추대됐으며, 고문에는 신홍수 재경 남원향우회장·김상근 남원 애향운동본부장·박기영 공공정책연구원장이 선임됐다. '해피N'은 앞으로 5개 분과(사회·생활·문화·환경·복지)를 중심으로 수시 세미나 개최와 전문 교수진과의 토론 및 주제 발표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김제 중3 졸업생 지역 고교 진학 5.1% 증가

김제시가 '내고장학교 보내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우수 학생들의 타지역 진학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중3 졸업생 가운데 74.4%가 관내 고교를 선택해 2010학년도 69.3%보다 5.1%p 증가했다. 김제시는 지난 2007년 8월 '김제사랑 장학재단'을 설립해 ▲지역인재 조기 발굴·육성 ▲성적우수 중학생의 지역 고교진학 유도 ▲관내 고교 진학 및 졸업자들에 대한 과감한 장학금 지원 ▲맞춤형 무료 강의를 해주는 '지평선학당' 운영 등 침체된 지역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구제역 방역…임실 '풍물굿 한마당' 연기

임실군은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임실군 강진면 필봉마을에서 개최예정이던 풍물굿 한마당을 연기했다.

임실 필봉농악보존회 주관으로 열리는 대보름 굿은 매년 전국 각지의 풍물 동호인과 관광객 등 5000여명이 참여하는 대단위 풍물잔치이다. 임실군은 구제역이 전남·북,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구제역 차단을 위해 행사를 연기해 5월 단오제와 함께 치르기로 했다.

/전북취재본부=서은종기자 seo@